

HOW TO LIVE SMART
당신의 말과 손짓에 모든 경제뉴스가 반응한다

코스피 1997.08(-31.95) 코스닥 486.80(-16.61)
달러값(원) 1138.2(+6.5) 금리(국고채 3년물) 3.50%(-0.04)

Samsung SMART TV

파리바게뜨 500m 내 새 매장 못 낸다

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범거래기준 마련

경기도 일산에서 12년간 파리바게뜨를 운영해온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문을 닫았다. 하루 160만원이던 매출이 절반까지 떨어져 수지가 맞지 않았다. 매출을 갠아먹은 건 인근의 또 다른 파리바게뜨 매장. 2009년 어느 날, 배송 기사가 “뒤쪽 5단지에 파리바게뜨가 또 생겼네요”라며 알려준 게 시작이었다. 2010년엔 앞쪽에, 2011년엔 옆에 또 하나 들어섰다. 이 중 김씨의 매장이 가장 작았다. 김씨는 “인근 큰 매장으로 매출이 빨려 들어갔다”며 “손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E3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프랜차이즈업체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와 푸레쥬르(CJ푸드빌)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9일 마련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700

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가맹점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퇴직금만 날리는 등 피해사례가 적지 않아 공정위가 나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범기준에선 기존 점포에서 반경 500m 안엔 새로 매장을 내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무분별한 출점은 고스란히 기존 가맹점주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전체 매장(3115개) 중 44.5%는 500m 안에 같은 브랜드 점포가 있다. 이 규정은 기존 매장까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기존 사업자가 폐점한 뒤 다른 사업자가 들어갈 땐 500m 규정을 지켜야 한다. 단 기존 가맹점이 문 닫은 뒤 다시 열거나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3000가구 이상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철길·왕복8차선 도로로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엔 가맹점 동의를 받은 뒤 열 수 있다.

매장 리뉴얼을 함부로 요구하지도 못하게 막았다. 매장을 이전·확장할 땐 비용의 40%, 그 외 일반 리뉴얼엔 20% 이상을 가맹본부가 지원하도록 것이다. 또 5년 이내엔 매장 리뉴얼을 원천적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가맹점이 원치 않는데 매장 확장을 강요하거나 리뉴얼을 거부한다고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는 행위도 금지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관계자는 “큰 그림에서 공정위 기준에 공감한다”며 “다만 세부사항은 개별 점주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뉴얼 강요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오래된 문제다. 인천시 서구에서 9년간 파리바게뜨를 운영해온 김모(51·여)씨도 지난해 9월 인테리어로 갈등을 빚다가 계약을 해지했다. 가맹본부에선 인테리어 한 지 5년이 됐으며 매장 리뉴얼을 요구했다. 인테리어에 장비, 케이크 진열장까지 바꾸려면 9000만원 가까이 들었다. 비용은 100% 점주가 대야 했다. 김씨는 “한 달 500만원 남짓 버는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매출을 받아야 한다”며 “9년간 빵집을 하면서 빚만 3억원이 쌓였다”고 한숨을 쉬었다.

공정위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장은 “리뉴얼 강요는 가맹점주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라며 “리뉴얼 뒤 매출이 늘어도 결국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은 본사만 이득 본다”고 지적했다. 또 “상반기 중 피자·치킨 가맹점에 대해서도 모범거래기준을 정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중국 물가 예상 밖 급등 9일 중국 안후이(安徽省) 허페이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주부가 채소 가격표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9일 발표된 중국의 3월 물가상승률은 3.6%로 시장 예상치(3.4%)를 웃돌았다. <관계기사 E2면> [허페이 로이터-연합뉴스]

매장 리뉴얼도 5년 내 불가
가맹점주 보호에 초점

“700만 베이비부머 창업
퇴직금만 날리는 경우 많아
피자·치킨도 기준 정할 것”

늘어나는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단위: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1568	1762	2188	2675	3095
푸레쥬르(CJ푸드빌)	859	1063	1274	1401	1281
크라온베이커리	473	417	355	252	170
신라명과	187	173	133	99	56
합계	3087	3415	3950	4427	4602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삼성에 밀려... 소니 1만명 감원

4년 연속 적자 후폭풍
임원 상여금도 전액 반환

일본 소니가 연내 임직원 1만 명을 감원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9일 보도했다. 1만 명은 전 세계 소니 임직원 수(16만8200명)의 6%에 해당한다. 소니의 감원 조치는 삼성전자·LG전자 등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면서 실적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소니는 2011 회계연도에 2200억 엔(약 3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4년 연속 적자다. 특히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소니 TV

는 삼성·LG에 밀려 8년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달 1일 공식 취임한 히라이 가즈오 신임 사장은 대대적인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삼성과의 LCD 합작사업에서 철수했고, 지난달에는 화학부문을 일본정확투자은행에 매각하기로 했으며, 최근 소니의 소형 LCD패널 사업을 도시바·히타치와 통합했다.

인력 감축과 함께 소니는 하위드 스트리밍 회장 등 임원 7명에 대해 상여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산은, HSBC 한국지점 11곳 인수

산은은행이 9일 HSBC한국지점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HSBC와 체결했다. 한두 달간의 실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인수가 확정된다.

산은은 이날 “HSBC서울지점의 개인금융사업 부문에 속한 11개 지점과 예수금 전액 및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담보대출채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각서를 HSBC와 교환했다”고 밝혔다. MOU에 따르면 양측은 HSBC서울지점의 자산(대출)과 부채(예금)를 산은은행이 넘겨받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을 택했다. P&A는 자

산·부채는 물론 조직과 인력까지 모두 인수해야 하는 인수합병(M&A)에 비해 인수하는 측의 부담이 작다. 영업권이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따로 지불할 필요도 없다. 산은 관계자는 “HSBC서울지점의 예금과 대출을 각각 3000억원씩 인수해 실제로 들어가는 현금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또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지 않고 재채용 여부를 산은에 맡기기로 했다. 인수가 끝나면 산은 지점망은 76개로 늘어났다.

나현철 기자 tigerace@joongang.co.kr



‘도토리 금리’
0.3%가 어디야
고금리 예·적금 어떤 게 있나
money& 오늘 발행

열정을 발휘하다
GM
이유정 주임

통찰력을 발휘하다
Project Management
김종혁 주임

기획력을 발휘하다
Marketing Management
박지혜 주임

상상력을 발휘하다
Art
이준호 주임

개발력을 발휘하다
Programming
이영욱 주임

창의력을 발휘하다
Game Design
삼나래 주임

판단력을 발휘하다
System Administration
이철민 주임

분석력을 발휘하다
Finance & Accounting
김지윤 주임

집중력을 발휘하다
TOA
김경문 주임

나를 발휘하다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보세요
QR코드를 찍으면 엔씨소프트 9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엔씨소프트 2012년 상반기
신입/인턴 공채

지원자격 | • 신일 대학(원) 기졸업자 또는 2012년 8월 졸업예정자 • 인턴 대학(원) 2013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기간 | 2012년 4월 9일(월) 오전 9시 ~ 4월 20일(금) 오후 5시
지원방법 | NCsoft 홈페이지 접속 후, 지원서 작성(www.ncsoft.com)
Q & A | • 채용트위터 http://twitter.com/NCsoft_Recruit • 이메일 recruit@ncsoft.com
•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ncsoft